정조의 奎章閣 解題書目 작성과 서명응 일가*

함 영 대**

1. 문제제기
2. 정조의 규장각 건립과『奎章閣志』편찬
3. 규장각 해제서목의 작성과 서명응 일가
4. 君師 정조의 문교 정책의 득실

1. 문제제기

정조는 국가 도서관으로 규장각을 중건하고, 친위세력으로 초계문신제도를 운용하면서, 다양한 학술문화 사업을 진행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방대한 중국도서의 수입과 정리 및 다양한 어제, 어정서의 편찬이다. 이른 바 국가급 수준에서 이루어진 문헌정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문신들의 부응이 필요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학자들의 상당수는 초계문신이었는데, 이는 정조가 배양한 것이다.[1)]

---

* 이 논문은 2017년 2월 14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열린 인문한국사업단 제31회 HK워크숍 "동아시아 문헌학과 문헌학자 Ⅱ"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1) 초계문신은 37세 이하의 參上(종6품이상 정3품), 參下(정7품이하 종9품)의 당하 문신 중에서 文名이 있는 자를 뽑아 규장각에서 재교육하여 40세가 되면 면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조선 전기의 사가독서제도를 계승한 것이다. 1781년 2월 18일 20명을 뽑는 것을 시작으로 정조대에는 10선에 138명을 뽑았다. 右文之治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매달 두 번 임금이 친림한 가운데 시험을 쳤으니 문화정치와 인재양성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정조의 사후 이 초계문신 제도가 폐지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에는 학술적인 목적 외에도 강력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계문신 제도에 대해서는 정옥

도서수입과 정리, 편찬에 있어 세종에 버금가는 활약을 보여준 정조는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국가문헌을 수입하고, 정리하고, 편찬하는 과정에서 문인지식인들을 활용했고, 그 과정을 통해 정조는 군주이자, 스승으로서 君師라는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君師적 지위는 조선의 경우 세종을 제외하고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경지이다. 하지만 세종 역시 신하를 자신의 손으로 시험치고 채점하는 식으로 기르지는 않았다. 정조의 경우는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매우 특별한 것이다.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지닌 군주가 탁월한 학술적 수준까지 겸비했을 경우 그 나라의 문예부흥은 자연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와 학술을 한 손에 장악한다는 것으로 그 문제점 역시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2)]

이 글에서는 정조대에 이루어진 문헌정리 작업의 일면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解題書目인 『奎章總目』과 『內閣訪書錄』, 『鏤板考』의 저작과정과 그 저작에 관여한 徐命膺 일가에 대한 고찰이다. 국가급 도서정리의 작업을 徐命膺과 그 아들 형제인 徐浩修와 徐瀅修, 서호수의 아들인 徐有榘까지 이어서 진행한 경우는, 가학을 통해 학술이 계승되는 전통시대의 학술환경을 고려한다면 드문 사례만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장서의 구축과 관련하여 이렇게 군주와 한 가문이 전면적으로 조응한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그 사실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 2006「규장각의 지식기반사회적 의의와 동아시아 문화」『규장각』 13; 김문식, 2007『정조의 제왕학』, 특히 250-256면 참조.

2)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당대에서부터 공조참의 李澤徵 등의 '규장각이 정조의 私閣이 되고 각신이 정조의 私臣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正祖實錄』 정조 6년(1782) 5월 26일 기사 참조], 이와 관련한 연구는 한영우, 2008『奎章閣』, 지식산업사, 30면 참조. 또한 초계문신 출신인 정약용 역시 규장각에 대해 "奎章閣者, 御製之所藏, 顧其職, 豈不重矣? 因此而別起衙門, 恐非古意."라고 하여 규장각을 별도 衙門으로 만든 것을 비판하였고, 초계문신 제도에 대해서도 "且雖聰慧之人, 御前咫尺, 背講群經, 有時顚蹶, 惶汗沾背. 或捶罰加身, 醜拙畢露, 擊之如童蒙, 束之如生徒. 凡一經此選者, 意氣沮蹙, 不敢抗顔論事, 終身嫆婀, 便作人主之私人."(『經世遺表』 卷1, 春官禮曹 · 弘文館)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다산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강직한 신하의 자세를 잃고 종신토록 몸을 숙여 군주의 私人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순조 대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노대환, 2017「19세기에 드리운 정조의 잔영과 그에 대한 기억」『정조와 정조 이후』, 역사비평사, 특히 156-158면 참조.

2. 정조의 규장각 건립과 『奎章閣志』 편찬

정조의 규장각 건립과 규장각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밝혀 놓은 것은 『奎章閣志』이다. 정조는 규장각을 건립하고 그 초기부터 다양한 문헌을 발간했는데 정작 이 『규장각지』는 정조 8년(1784)에야 그 형태를 드러낸다. 완성본의 어제 서문에 그 정황이 나와 있다. "내가 즉위한 처음에 규장각을 건립하고, 얼마 후 각신들에게 『규장각지』를 편찬하라고 지시했으나 5~6년이 되도록 완성하지 못했다. 이는 편찬을 위촉한 것이 느슨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와 의식이 미처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3] 새롭게 만들어지는 관청의 규모에 대해 정조는 적지 않게 고심하여 많은 노력을 들였다.[4] 그 지침이 바탕이 되어 구축된 규장각은 실제로 정조의 右文정치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런데 초기에 이 관제의 성립과 관련하여 정조는 먼저 대사성 벼슬에 있던 서호수에게 교서관과 규장각을 合設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다.

> "교서관을 규장각에 合設하는 것은 어떠한가?" 서호수는 말하기를 "대제학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듯합니다."라고 했다. 내가 "대제학이 예겸하면 일이 많고 불편해서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하자 서호수는 "규장각제학이 문형에서 많이 나온다면 그 근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5]

그런데 규장각의 제학을 문형에서 뽑아 별도의 아문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고자 했던 서호수와 달리 서명응은 문형의 예겸을 비판하고 규장각 당

---

3) 正祖, 『弘齋全書』 卷8, 「奎章閣志序」 "予卽位之初, 建奎章閣, 旣而命閣臣撰志, 迄五六年不成. 不惟屬纂之緩, 制度儀式未立故也."

4) 『규장각지』는 정조의 官署志의 정비와 편찬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집필된 것이다. 1784~1785년에 『규장각지』와 『弘文館志』, 『태학지』가 통일된 체제로 정비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정조는 이를 '三志'라고 불렀다. 물론 여기서 가장 주도적인 것은 규장각으로서 규장각이 홍문관을 비롯한 관각의 기구들을 아우르면서 학문을 주도하는 기구가 되었다. 이에 대해 당대의 신하 김종수는 "국왕이 규장각을 설립하면서 복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문식, 2009 「정조시대의 규장각」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특히 26-30면 참조.

5) 『日省錄』 正祖 1년 12월 18일 "校書館合設於奎章閣則, 或有所勝耶? 浩修曰大提學似或爲難矣. 予曰大提學例兼則, 事多難便云矣. 浩修曰奎章閣提學, 多出於文衡則, 便是不失其本矣."

상이 전적으로 일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각제학에 임명되어 있던 서명응으로서는 좀 더 규장각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

> "규장각은 곧 우리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첫해에 처음으로 창설하신 제도입니다. 文治가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음이 없으니 의당 규모를 바로잡고 절목을 상세하게 정하여 영구히 흔들리지 않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개 外閣을 用으로 삼고, 內閣을 體로 삼았으니 우리나라에서 文衡이 三館을 겸한 것도 이 뜻입니다. 지금 교서관과 규장각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규장각 당상으로 교서관제조를 예겸하게 하며 낭청으로 교서관교리를 예겸하게 하고, 교서관 아문을 時御所 부근의 관청과 서로 바꾸어서 옮겨 설치하소서. 무릇 외각에서 책을 인쇄하고 간행하는 등의 일을 모두 내각당상과 낭청이 주관하여 거행하면 거의 교서관과 규장각이 체용을 겸하고, 내외가 하나가 되는 방도가 마련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재결하소서"[6]

이러한 건의를 통해 규장각제학이 교서관제조를 겸임하고, 직제학이 부제조를 겸임하고, 직각이 교리를 겸임하게 했다.[7]

한편, 『규장각지』는 정조 2년에 서명응 비롯한 7인의 편찬자와 6인의 교열자가 선정되어 책을 편찬하도록 했지만 쉽게 이루지 못했다. 즉위하고 3년이 지난 1779년 정조는 『규장각지』의 초고에 서문을 작성한 뒤 서명응에게 서문을 손질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일로 서명응은 『규장각지』의 교정을 위해 겨울에 규장각에 입실했다. 지금 남아있는 초초본이 이것이다. 이것을 다시 전면 수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서명응의 아들, 서호수는 내각의 기능을 '備顧問掌詞命之地'라고 하여 마땅히 경연과 관각을 겸대하도록 했다. 이러한 곡절 끝에 정조 7년 2월 2일에 서명응은 책을 올리는 일로 입궐했다. 후에 승지가 되는 徐瀅修와 개성유수 徐有防 역시 『규장각지』의 수정을 위해 수시로 드나들었다. 최종 교정을 했던 정조 8년에는 이덕무까지 참여했다.[8]

---

6) 『日省錄』 正祖 1년 12월 21일 "內閣提學, 徐命膺箚陳閣規, 賜批箚略曰, 奎章閣卽我殿下元年首創之制, 而文治莫不權輿於此, 宜正規模詳節目以爲永久不拔之圖. 蓋以外閣爲用內閣爲體, 我國文衡之兼三館, 亦此意也. 今館與閣旣已具備, 以奎章閣堂上例兼芸閣提調, 郎廳例兼芸閣校理而, 芸閣衙門與時御附近之公廨互換移設. 凡外閣之印書刊書等事, 皆內閣堂郎主管擧行則, 庶可爲辨館閣兼體用一內外之道, 伏惟財幸焉.

7) 『正祖實錄』 正祖 2년 3월 25일 "以奎章閣提學兼校書館提調, 直提學兼副提調, 直閣兼校理."

8) 『규장각지』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남권희, 2008 「『규장각지』의 편찬과 19세기 규장각

결론적으로 규장각의 체제와 그 역할을 정하는 『규장각지』의 제작 과정에서 서명응과 서호수 부자는 매우 긴밀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 관여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초부터 이 일에 가장 큰 책임을 맡았던 서명응은 정조의 동궁시절 사부로서, 정조가 동궁시절에 구축한 서재인 貞蹟堂에 記文을 붙이면서 서적을 모으는 것과 국가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진중한 의미를 의미심장하게 밝혀두었다.[9]

> 천하의 蹟은 서적만한 것이 없고, 천하의 蹟과 貞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서적만한 것이 없다. 왜 그런가? 서적에 실린 것은 위로는 天道, 아래로는 地理,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는 陰陽, 환하게 드러난 것으로는 禮樂이 있으며, 古今治亂의 자취와 賢邪淑慝의 분별까지 巨細精粗를 갖추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어찌 蹟이 아니겠는가? 이에 군자는 蹟을 탐색하고 識趣를 넓히며 智慮를 연다. (중략)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서적 모으는 것을 先務로 삼으니 삼대에도 이를 숭상했다. (중략) 지금 우리 저하께서는 영민하고 슬기로운 자질로 精一한 도를 구하시어 經筵 講說에서 문득 이들을 놀라게 만들며 말씀하시기를 "학문이 넓지 못하면 約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經史子集과 百家의 서적을 모두 수집하여 쌓아두고, 여러 서적을 상아로 만든 첨대로 표시해 두었으니, 한가히 계시는 곳의 옆에 당을 지은 뜻이다. (중략) 비록 평소에 보지 못했던 책이라도 한번 책을 펴면 환연히 얼음 녹듯 할 것이니, 이른 바 요약됨을 지키는 것이 該博함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貞蹟의 뜻이고, 藏書樓를 貞蹟堂이라 명명한 까닭이다.[10]

사적보관제도」『서지학연구』 40, 76-86면 참조.

9) 달성서씨 집안의 중국서적 구입은 그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다. 숙종 16년(1690, 康熙 29)에 연행한 徐文重은 이미 당시에 2,100책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구입했다. 이에 대해서는 부유섭, 2010「연행록을 통해 본 康雍 연간 중국서적 유입에 대하여」『한문학보』 22, 280-282면 참조. 서명응으로부터 서형수에 이르는 시기에 정조의 명으로 중국에서 국가급 수준의 도서를 구입한 정황은 김문식, 1994「18세기 후반 서울학인의 청학인식과 청문물 도입론」『규장각』 17, 12면 참조.

10) 徐命膺, 『保晩齋集』 卷8, 「貞蹟堂記」(『韓國文集叢刊』 233, 212面) "天下之蹟莫如書, 而使天下之蹟貞夫一, 又莫如書. 何則? 書之所載, 上而天道, 下而地理, 幽而陰陽, 顯而禮樂, 以至古今治亂之蹟, 賢邪淑慝之辨, 巨細精粗, 莫不畢具, 豈非蹟也乎? 於是君子探蹟, 博其識趣, 開其智慮. (중략) 是故有國家者, 必以聚書爲先務, 三代尙矣. (중략) 今我邸下以英睿之姿, 求精一之道, 肯筵講說, 動驚人聽. 乃曰學不博, 無以致其約也. 凡經史子集百家之書, 兼收幷蓄, 芸緗縹帙, 懸以牙籤, 卽燕居之傍而堂焉. (중략) 雖平日所未窺之書, 一展卷渙然冰釋, 所謂守約足以盡博者, 不其然乎?此貞蹟之義也, 此貞隨之所以名藏書也夫."

정조의 동궁시절 서재인 정색당은 정조가 왕위에 등극한 이후 규장각을 건립한 기초가 되었다. 정조는 자신의 스승, 서명응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부응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서적 모으는 것을 先務로 삼았던' 것이다.

3. 규장각 해제서목의 작성과 서명응 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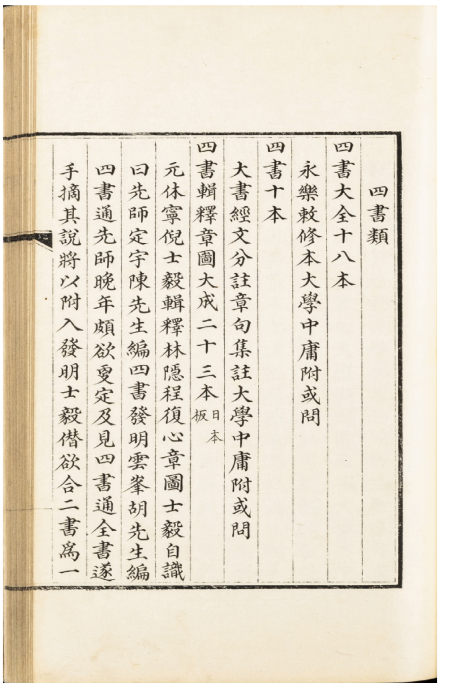
규장각을 설립하고 모은 도서를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정조 5년(1781)에 저작된 『奎章總目』이다. 『규장총목』은 經史子集을 각권으로 하여 경·사부 1책, 자부 1책, 집부 1책의 4권 3책이다. 이는 皆有窩에 있던 중국본도서의 書目으로 최초 서명응에게 명을 내린 것을 그 아들 서호수가 撰人姓名, 所著依例 등을 표시하고, 각 도서의 序跋 등을 절취하여 기록한 것이다. 당대의 正學인 성리학과 위배되는 서적에 대해서는 간간이 按說을 붙여 비판하기도 했다.[11] 그러니까 『규장각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 『규장총목』도 함께 그 집안에 의해 제작되었던 것이다.

규장각이 소장한 중국본 도서의 총목록이 된 『규장총목』에 대해 정조는 목록서를 만드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 목록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 책 목록을 만드는 것은 실제 劉歆의 『七略』으로부터 시작되어, 班固의 『六略』, 王儉의 『七志』, 阮孝緖의 『七錄』, 許善心의 『七林』이 있으니, 그 義例의 가감은 각기 위주로 하는 바가 있다. 荀勗에 이르러서 처음 四部로 분류하였는데 그 뒤 李充, 謝靈運, 王亮이 모두 따랐고 任昉만은 五部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唐·宋·元·明의 『秘閣書目』은 모두 四部로 기준을 삼았으며, 기타 陳振孫의 『直齋書錄』이나 晁公武의 『讀書志』와 馬端臨의 『文獻通考·經籍考』가 모두 四部를 따랐으니, 지금 책 목록을 만드는데도 四部를 정법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사부를 따르더라도 분류를 혼동하기가 쉽고, 解題를 쓸 때에 설명이 틀리기 쉬우니, 책을 만드는 어려움 중에서도 書目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큰 병통은 고루한 것인데, 만일 이 책

11) 『규장총목』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는 신용하, 1981 「『규장총목』 해제」 『규장각』 4 참조. 현존 『규장총목』의 형성과 그 내용적 특징에 대해서는 정호훈, 2012 「『규장총목』과 18세기 후반 조선의 외래지식 집성」 『한국문화』 57 참조.

을 잘 만들어 즉시 간행하여 배포한다면, 마단림이 말한 '그 책을 읽는 자가 깊이 연구하여 뜻을 환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서목을 열람하는 자가 이 소개하는 내용을 맛보고도 그 端緖를 대충은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니, 그 공이 어찌 적다고 하겠는가. 경들은 고루 찾고 널리 상고해서 마음을 다하여 편찬함으로써 맡은 직책에 부응하는 한편 학자에게 혜택을 주는 실효를 거두도록 하라.[12]



〈그림 1〉『규장총목』(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4461)

12) 正祖, 『弘齋全書』 卷161, 『日得錄·文學』 "書目之作, 實自劉歆之七略始, 而班固有六略, 王儉有七志, 阮孝緖有七錄, 許善心有七林, 其義例損益, 各有所主. 至荀勗, 初分四部, 其後李充, 謝靈運, 王亮俱因之, 獨任昉增爲五部. 然唐宋元明之祕閣書目, 莫不以四部爲紀, 他如陳振孫直齋書錄, 晁公武讀書志, 馬端臨經籍考, 皆從四部, 則今著書目, 亦當以四部爲正. 而但四部之中, 分類易眩, 解題之際, 立言易錯, 著書之難成, 莫難於書目. 大抵東人最患固陋, 若使此書善成, 劃卽刊布, 則馬貴與所謂不但讀其書者潛加研窮, 爲可以洞究旨趣. 卽閱其目者味玆題品, 亦足以粗窺端倪者, 其功又豈淺尠哉? 卿等須旁搜博考, 悉心編摩, 一以副典守之職責, 一以著嘉惠之實效也." 이 내용은 상당부분 『奎章總目凡例』의 내용을 원용한 것이다. 정조의 '『규장총목』'에 대한 견해는 서호수의 견해와 상당부분 합치되는 것이다.

이 때 만들어진『규장총목』의 찬술에 대해서『실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했다.

> 내각의 장서는 대개 宋나라의 太淸樓와 明나라의 文淵閣의 遺制를 본뜬 것으로, 새 책을 구매하거나 선본을 다시 새겨 찍어내서 동쪽의 두 누각에 보관하였다. 또한 사사로이 간행한 책이 있으면 外閣의 관원과 여러 道臣으로 하여금 그때 그때 찍어서 보내도록 하였다. 摛文院에 소장한 書籍 가운데 華本을 소장하는 데는 모두 집이 따로 있으며[13] 東本은 西庫에 소장하였다. 원임제학 徐命膺에게『奎章總目』을 찬술하라고 명하였다.[14]

이『규장총목』편찬 작업은 1781년 2월에 일을 시작해서 그해 6월 말에 마무리된 데서 알 수 있듯, 해제 작업은 초속성으로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原任提學 徐命膺(1716~1787)에게 이 일을 주관하도록 했는데, 실제 작업은 그의 아들 徐浩修(1736~1799)가 맡아 진행했다. 徐浩修는 이때 江華留守로 재직하면서 규장각 檢校直提學 또한 겸임하고 있었다. 서명응의 둘째 아들인 徐瀅修(1749~1824)도 작업에 참가했다. 이때 서형수가 작업에 참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던가 하는 점은 해당 자료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1805년(순조 5)에 있었던 순조와 서형수의 대화, 서형수의 문집인『明皐集』에 실려 있는『규장총목』의 범례로 본다면 서형수는 이 작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규장총목』의 범례를 작성할 정도라면 핵심적인 일은 그가 다 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15]

그럼『규장총목』의 해제와 정조의 해당 서목에 대한 이해를 몇 조항만 비교해 본다. 많은 사연을 담은『重訂四書輯釋』의 경우를 살펴본다.

> 元 休寧 倪士毅 輯釋. 林隱 程復心 章圖
> ① 士毅가 自識에서 말했다. "스승이신 定宇 陳櫟선생은『四書發明』을 편찬했고, 雲峯 胡炳文선생은『四書通』을 편찬했다. 스승은 만년에 자신의 책을 고치려는 뜻

13) 화본이 있던 곳은 閱古觀과 皆有窩이다.

14)『正祖實錄』正祖 5年(1781) 2月 13日 "內閣藏書, 蓋倣有宋 太淸樓、皇明 文淵閣之遺制, 或購求新書, 或翻刻善本, 藏之東二樓. 又有私刊之書, 令外閣官, 諸道臣隨卽印送, 摛文院內藏書籍華本, 藏皆有窩, 東本藏西庫, 命原任提學徐命膺, 撰『奎章總目』."【태백산사고본】11책 1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45책 211면.

15) 정호훈, 앞의 논문.

이 자못 있었는데 『四書通』을 보시고는 전서에서 마침내 그 손수 그 설을 오려내어 『사서발명』에 편입해 붙여 넣으시려고 했다. 나는 마음 속으로 두 책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되 스승을 元統으로 하려 했다. 甲戌 2월에 스승께서 돌아가셨다. 스승께서 손수 골라놓으셨던 것을 참작하여 편성하고는 『四書輯釋』이라고 이름 붙였다. 마침 동문 친구인 朱允升이 또한 이런 뜻이 있어서 마침내 서로 상의하여 정하고 범례를 두어 證正을 더했다.

② ○ 萬經이 말했다. 주자의 集註가 당시에 통행될 때에 이미 勉齋에게는 『通釋』이 있었다. 語錄에서 채록하여 『大學章句』의 아래에 붙인 것은 처음 西山眞氏로부터 시작했는데 『集義』라고 했다. 祝宗道의 『四書附錄』도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格菴 趙氏에게는 『纂疏』가 있고, 克齋 吳氏에게는 『集成』이 있고, 定宇 陳氏에게는 『發明』이 있고, 雲峯 胡氏에게는 『四書通』이 있고, 仁山 金氏에게는 『指義』가 있으나 의미가 밝게 구비되고, 채택이 정밀하고 마땅한 것으로는 道川 倪氏의 『輯釋』만한 것이 없다. 明 永樂 연간에 여러 신하들을 소집하여 『永樂大全』을 만들 때에도 실로 이 책에 근본했다. 그 후에 『大全』이 통행되자 『집석』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자들이 드물어졌다.

③ ○ 신이 삼가 살피건대 『浙江遺書總錄』에도 이 책이 실려있는데 「泰伯」, 「子罕」, 「鄕黨」 세 편은 빠져있습니다. 대개 영락제가 『대전』을 간행하여 반포한 이래 조정에서 선비를 뽑거나 塾師에서 생도들을 가르칠 때 대부분은 『대전』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므로 학자들도 『집석』이 있다는 것을 모른 지 거의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浙江은 바로 古家의 遺書들이 모이는 곳인데도 단지 元代에 간본 하나뿐이고, 그마저도 『魯論』 3편은 이미 망실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이역에 전해져 예씨의 완전한 책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薛瑄, 顧炎武 등도 모두 『輯釋』을 폐할 수 없다고 했는데, 汪份이 그 한두 가지의 오류를 지적하여 방자하게 헐뜯고 배척하니 망령됩니다.[16]

이를 『群書標記』의 『重訂四書集釋』의 책에 대한 소개와 비교해 보면 좋은 대조가 된다. 『중정사서집석』은 御定書로 분류되어 있다.

『重訂四書輯釋』 38권 寫本 ○ [기미년(1799, 정조 23) 편찬]

① 『大學』 1권, 『大學或問』 1권, 『論語』 20권, 『孟子』 14권, 『中庸』 1권, 『中庸或問』 1권이다. 朱子가 章句와 集註를 저술한 이후로, 勉齋 黃榦은 『論語通釋』을 저술하

16) 『奎章總目』 『皆有窩 甲庫』 『經部 · 四書類』.

였고, 西山 眞德秀는 『大學集義』를 저술하였다. 이후로는 諸儒가 계속해서 보충하고 바로잡아 四書를 주석한 학자가 대략 수십 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서 義理가 명확하면서도 완비되어 있고, 諸說의 선택이 적당하고도 간략한 것으로는 元 나라 倪士毅가 엮은 『四書輯釋』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일컬어진다. 이 『사서집석』은 胡炳文의 『四書通』과 陳櫟의 『四書發明』을 토대로 하여, 오류를 刪正하고 합하여 한 책으로 만든 것이다.

② 明 나라 永樂 연간에 儒臣에게 지시하여 『四書大全』을 편찬할 때에 『사서집석』을 藍本으로 삼았다. 그러나 상세함에서나 간략한 면에서 도리어 『사서집석』만 못하다. 그 가운데서도 『대학혹문』과 『중용혹문』이 특히 착오가 많다. 당시에 薛瑄과 같은 학자들은 이미 『사서대전』의 체계 없이 어수선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사서집석』에 대해서만은 많은 관심을 표하였으니, 두 책의 장단과 우열에 대해서는 자고로 定論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서대전』을 學宮에 반포한 이후로 위로는 조정의 인재 선발에서 아래로는 私塾의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두 『사서대전』을 기본으로 삼게 되면서, 『사서집석』은 마침내 다시 읽히지 않게 되었다.

③ 근세에 浙江에서 판각한 『遺書目錄』에는 元刻本 『사서집석』이 수록되어 있는데, 『논어』의 泰伯 · 子罕 · 鄕黨 3편이 빠져 있다. 절강은 遺書를 갖고 있는 古家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요행히도 떨어져 나간 한 책이 남아서 보기 드문 큰 보배임을 알려 주고 있으니, 이 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한 알 수 있다.

④ 옛날 世宗朝에서 새로 주조한 활자로 『四書輯釋通義大成』을 印行하여 반포하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모두 없어지고 전하는 책이 없다. 내가 春邸에 있던 임진년(1772, 영조 48)에 세종조의 活字木本을 구하여 銅活字 15만 자를 주조하면서, 세종조에 간행한 책을 重刊하여 그 아름다운 일을 계승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內藏本인 倭刻本 『사서집석통의대성』 1부를 賓僚에게 내려 주고 『사서집석』에 後學이 붙인 約說, 章圖, 通攷, 通義 등을 모두 삭제하고 倪氏가 편찬한 舊本만을 뽑아 繕寫하여 對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 편씩 올릴 때마다 직접 校訂을 보았는데, 몇 해에 걸친 작업으로도 끝내지 못하였다. 내가 즉위한 이후로는 정사를 보느라 겨를이 없어서 끝내 인행하여 반포하지 못했고 이 책 또한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⑤ 그 후 기미년(1799, 정조 23) 겨울에 우연히 내가 편찬한 책의 標題를 점검할 때에 그 책이 작고한 賓客 徐命膺의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가져다 보니,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즉시 신하들에게 분담하여 교열하게 하였는데, 永樂 연간에 간행한 四書와 문자의 차이가 있는 곳은 일일이 欄 위에 標註를 달고, 인용한 先儒의 성씨의 기록 방식이 다른 것은 모두 널리 조사하여 바로잡았다.[17]

『규장총목』의 내용과 『群書標記』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두 내용은 ①②③의 내용은 서로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핵심 내용은 문장마저도 비슷한 데가 있다. 다만 『규장총목』이 서발문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 소개에 집중하고 있다면, 『군서표기』는 이 책의 간행과 관련한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의 ④의 마지막 문단과 ⑤에 기록된 내용은 정조와 서명응 일가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정조는 이 책에 대해 매우 애정과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과정은 고스란히 서명응과 그 일가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규장총목』이 만들어진 정조 5년의 6월의 실록 기사에는 『규장총목』이 만들어진 경과와 정조의 중국본 도서구입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 『奎章閣總目』이 완성되었다. 임금이 평소 經籍을 숭상하여 春邸에 있을 때부터 遺編을 널리 구매하여 尊賢閣의 옆을 확장하여 그곳에다 저장하여 두고서 孔子가 지은 『周易』 繫辭의 내용에 있는 말을 취하여 그 堂의 이름을 '貞蹟'이라고 하였다. 登極하기에 이르러서는 그 규모를 점점 넓혀 병신년 첫 해에 맨 먼저 『圖書集成』 5천여 권을 북경의 책방에서 구입하였고, 또 舊 弘文館의 소장본과 江華府 行宮에 저장되어 있던 明나라에서 내려준 여러 가지 책들을 옮겨다 보태었다. 또 唐나라와 宋나라 때의 故事를 모방하여 『訪書錄』 2권을 찬술하여 內閣의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조사하여 구매하게 하였다. 무릇 山經·海志 가운데 비밀스럽고 희귀한 책들로서 옛날에 없던 것으로 지금 구비되어 있는 것이 무려 수천·수백 가지 종류나 되었다. 이에 閱古觀을 昌慶宮 內苑 규장각의 서남쪽에 건립하고 중국 책들을 저장하였으며, 또 열고관의 북쪽에 西序를 건립하여 우리나라의 책을 저장하였는데, 총 3만여 권이었다. 經書는 紅籤, 史書는 靑籤, 子書는 黃籤, 集書는 白籤을 사용하여 종류별로 彙分한 다음 각각 위치를 정리였다. 이 책들의 曝曬와 出納은 모두 閣臣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으며, 在直中인 각신이 혹 일이 있어 이를 考覽하여야 할 경우에는 牙牌를 사용하여 내어주기를 청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각신 徐浩修에게 명하여 書目을 찬술하게 하였는데, 經書類 아홉, 史書類 여덟, 子書類 열다섯, 集書類 둘로, 閱古觀書目 6권, 西序 서목 2권을 통틀어 『奎章總目』이라고 명명하였다.[18]

17) 正祖, 『群書標記』 「御定書」 4, 「重訂四書集釋」 38卷.

18) 『正祖實錄』 11卷, 正祖 5年 6月 29日 "『奎章總目』成. 上雅尙經籍, 自在春邸, 購求遺編, 拓尊賢閣之傍而儲之, 取孔子 『繫易』之辭, 名其堂曰貞蹟. 及夫御極, 規模寖廣, 丙申初載, 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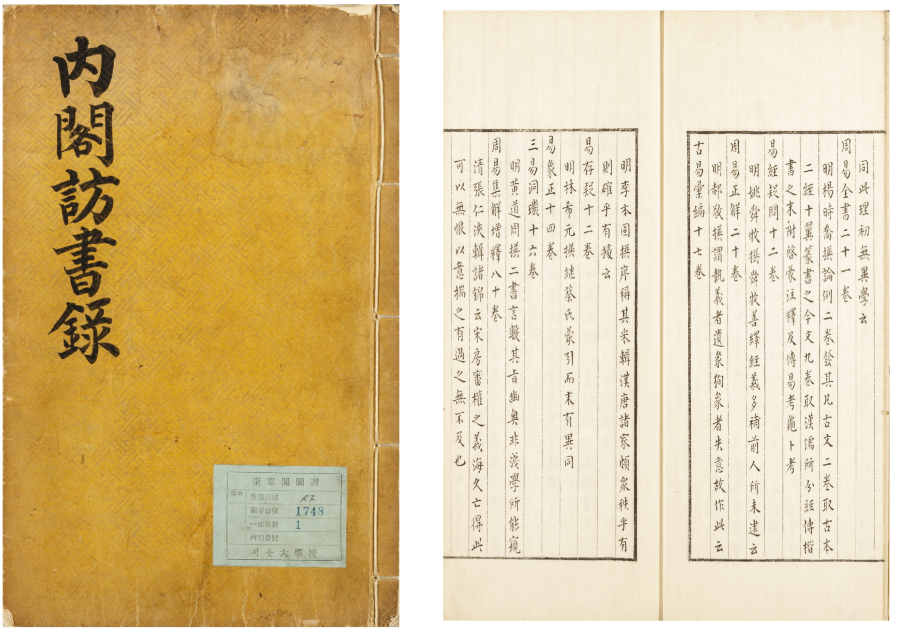
거론된 『방서록』이라는 책은 현재 『내각방서록』이라는 서명으로 규장각에 남아있다. 『내각방서록』의 유목배열은 『奎章總目』과 『四庫全書總目提要』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屬을 생략하면 유목의 전개 수에 있어서는 『규장총목』과 일치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385종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는 「내각방서록」에서 각 분포비율은 경부134종(34.8%), 사부63종(16.6%), 자부124종(32.2%) 집부63종(16.4%)의 비율을 보이는데 실제 『규장총목』의 구입비중은 경부78종(11.2%), 사부134종(19.2%) 자부182종(26.1%), 집부303종(43.5%)의 분포비율을 보였다. 곧 구입희망도서는 경부와 자부가 높았으나 실제 수장된 서적은 사부와 집부가 많았던 것이다.

아울러 수록된 도서의 상당 부분은 『浙江採集遺書總錄』에서 발췌된 것이다. 『절강채집유서총록』은 건륭제의 명을 받아 병부상서 鐘音 등 5인이 대총재관이 되어 수십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완성한 청대 목록학서로서, 해제서목인 『내각방서록』에 해제가 없는 수종의 도서는 바로 그 절취한 『절강채집유서총목』에도 해제가 없다. 이 책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弘濟라는 인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정조 역시 이 책을 구득하여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1781년에 출간된 『규장총목』의 범례와 1795년에 편찬된 『누판고』의 범례에도 소개되었다. 시기적으로도 정조가 동궁으로 있던 1774년 마침 『절강채집유서총록』이 간행되었고, 『직재서록해제』가 重刊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참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19]

先購求『圖書集成』五千餘卷于燕肆, 又移舊弘文館藏本及江華府行宮所藏皇明賜書諸種以益之. 又倣唐、宋故事, 撰『訪書錄』二卷, 使內閣諸臣, 按而購貿。 凡山經、海志, 秘牒稀種之昔無今有者, 無慮數千百種。乃建閱古觀于昌慶宮內苑奎章閣之西南, 以峙華本。又建西序于閱古觀之北, 以藏東本, 總三萬餘卷。 經用紅籤, 史用靑籤, 子用黃籤, 集用白籤, 彙分類別, 各整位置. 凡其曝曬出納, 皆令閣臣主之, 在直閣臣, 或有事考覽, 則許令用牙牌請出。至是命閣臣徐浩修, 撰著書目, 凡經之類九, 史之類八, 子之類十五, 集之類二, 『閱古觀書目』, 六卷, 『西序書目』, 二卷, 總名之曰『奎章總目』."

19) 『내각방서록』에 대해서는 정연식, 1990 「『내각방서록』 해제」 『규장각』 13; 강혜영, 1994 「『내각방서록』의 서지학적 연구」 『서지학연구』 10 참조.



〈그림 2〉『내각방서록』(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748)

한편, 『내각방서록』 역시 적지 않은 생략과 추가 서술을 통해 조선에서 취할 만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일방적인 베끼기로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20]

정조가 기획한 규장각의 해제서록에 얼마간의 독자적인 해제가 있는 것 역시 정조의 독서습관을 고려하면 매우 이해할 만한 것이다. 다만 정조는 『일득록』에서 자신의 독서 습관을 이렇게 고백한 바 있다.

> 나는 젊어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여 바쁘고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날마다 정해놓은 분량을 채웠는데, 읽은 經史子集의 대략만 계산해 보아도 그 수가 매우 많다. 그래서 讀書記를 만들고자 四部로 분류한 다음 책마다 밑에 편찬자와 의례를 상세하게

20) 대표적으로 서적에 대한 평에서 그러한데 권1의 經部 古易彙編의 경우 『내각방서록』에서는 서문을 인용하여 "한당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채집한 것이 매우 많은데 조목들이 질서가 있고, 근거가 확실하다."고 했지만 『四庫全書總目提要』의 경우, 이 책은 주희가 아닌 오징의 판본을 따르면서 출처와 근거가 없어 사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동일한 책에 대한 상이한 평론은 조선학술의 중국서적에 대한 평가의 일면으로 이해된다.

기록하였으며, 끝에는 어느 해에 읽었다는 것과 나의 평설을 덧붙여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책을 음미하고 품평한 것을 사람들이 모두 두루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한적한 시간에 한가로이 뒤적여 보면 평생의 공부가 또렷이 눈에 들어와 반드시 경계하고 반성할 곳이 많아질 것이다.[21]

정조의 이러한 독서습관은 『규장총목』의 저작에 깊이 관여되었음은 물론이고, 책의 구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누판고』이다. 이 책은 610종의 도서에 대한 정보를 싣고 있는데 이 역시 정조의 깊은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奎章閣志』의 刊印조의 내용에 의하면 도서의 간행은 鏤板과 활자로 구성되어 있다. 『누판고』는 활자가 아닌 목판에 의한 것만을 중점 정리한 것인데 그 의미에 대해 정조는 이렇게 말했다.

世祖朝에 대제학 梁誠之가 奎章閣을 두어서 御製와 圖籍을 보관할 것을 청하고 또 각 고을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는 册板을 기록하여 典校署에 올려 보내고 이를 전교서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세조가 여러 번 시행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시고 말았었다. 나는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內苑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서적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양성지가 건의하였던 내용을 따른 것이다. 2년 뒤인 무술년(1778, 정조 2)에 각도에 下諭하여 公私 간에 소장하고 있는 책판을 모두 기록하여 올리도록 하여 규장각에서 그 보존 상태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니, 이때에 이르러 聖祖께서 뜻하신 일과 어진 재상의 계책이 비로소 질서 정연하게 모두 갖추어져 환하게 구비되었다.

병진년(1796, 정조 20)에 다시 각신 徐有榘에게 명하여 中外의 『藏板簿』를 가져다 유별로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되 매 책마다 반드시 편찬자의 성명과 義例의 대략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卷帙의 수효와 판본의 소재를 빠짐없이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책은 오로지 목판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書名을 『鏤板考』라고 하였다.[22]

---

21) 正祖, 『弘齋全書』 卷162, 「日得錄 · 文學2」 "予自少喜讀書, 雖倥傯擾攘之中, 未嘗不日有課程, 所讀經史子集, 約略默計, 其數甚夥. 欲作讀書記, 以四部分其類, 每書下, 又以撰人與義例詳註之, 而末附以何年誦讀. 己意評騭, 作爲一書, 蓋不特味玆題品, 人皆可以廣周見, 予亦淸燕之暇, 間加披閱, 平生工夫, 歷歷在目, 必多有警省處也."

22) 正祖, 『弘齋全書』 卷184, 『群書標記』 「鏤板考」(1796年 編纂) "世祖朝, 大提學梁誠之請置奎章閣, 以奉御製峙圖籍. 又請令列邑開錄書籍藏板, 上送典校署, 使之考察, 世祖亟稱其可行, 而未及施用. 予於丙申, 置奎章閣于內苑, 建官藏書, 多用誠之議. 粵二年戊戌, 下諭諸道公私所藏刊書板本, 竝令計開錄上, 自本閣考察其存佚, 蓋至是而聖祖之志事, 賢輔之訏謨,

이 「누판고」가 『攷事撮要』, 『三南册板目錄』, 『各道册板目錄』 등 역대책판목록과 크게 다른 특징은 각 道郡 순으로 만든 책판목록이 아니라 경사자집의 사부분류법에 의해 배열된 점과 각 저작에 해제를 붙인 점인데,[23] 이러한 도서의 특징은 정조의 도서정리의 취향과 일치할 뿐 아니라 이에 부응한 서명응 일가의 가학적 전통이 계승된 것이다.

몇몇 조항만 들어 보아도 『누판고』의 평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식견으로 도서의 성격을 밝혀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 『朱子書節要』 : 이황이 처음 이 책을 보고나서 [주자를] 독실하게 믿었다. 주자의 서간 가운데 학문 일용 간에 가장 절실한 것을 뽑았는데, 文理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주석도 간략하게 붙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자의 책을 존경하고 숭배하게 된 것은 실로 이 책으로부터 시작된다.[24]

> 『磻溪隨錄』 : 대개 이 책은 옛 일을 참고하여 지금 일을 바로잡았으며, 그 규모와 계획이 세밀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거론하고 시행할 만하다. 비록 心과 性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근세의 선비들의 행위와 같은 것이지만 선비가 실용을 궁구하는 데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25]

한편 우리는 서명응과 아들형제 및 서유구의 학문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좀 더 유념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긍익은 『연려실기술』에서 鑄字와 관련한 논의에서 정조와 서명응 일가의 주자에 대한 정보를 아주 상세하고 의미있게 기술해 놓았다.

始綱擧目張, 燦然大備矣. 歲丙辰, 復命閣臣徐有榘取中外藏板簿, 分門類次, 彙成目錄, 每一書, 必標其撰人姓名義例大致, 而卷帙之多寡, 板本之所在, 無不備著而該載, 爲其專錄刓劂之本, 故曰鏤板考."

23) 이상용, 2005 「『누판고』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1 참조.

24) 徐有榘, 『鏤板考』 「別集·朱子書節要」 "滉始見而篤信之, 選其書牘中最切於日用學問者. 遇文理難解, 略綴註釋. 東人之尊崇朱書, 實權輿於是書."

25) 徐有榘, 『鏤板考』 「子部·儒家類, 磻溪隨錄」 "蓋其書酌古宜今, 規劃纖整, 可擧而措之. 雖未嘗說心說性, 如近世儒者之爲, 而儒者之實用究莫加焉."

〈그림 3〉『누판고』(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0440)

正宗 원년(1776) 丁酉에 평안감사 徐命膺에게 명하여 甲寅字를 대본으로 15만 자를 任所에서 주조하게 하여 內閣에 儲藏하였고, 임인년(1782)에 평안 감사 徐浩修에게 명하여 韓構의 글씨를 대본으로 8만여 자를 그 감영에서 주조하게 하여 또 內閣에 간수하였다. 활자에는 모두 記文과 跋文이 있었는데, 癸未字에는 보문각 대제학 權近의 발문이 있고, 庚子字에는 집현전 대제학 卞季良의 발문이 있으며, 甲寅字에는 집현전 직제학 金鎭의 발문이 있고, 丁酉字에는 규장각 제학 徐命膺의 기문이 있다.[26]

정조는 서명응과 서호수 부자를 1776년과 1782년에 각각 평안 감사에 제수하여 주자를 명하는데 갑인자와 한구자를 저본으로 하는 활자 23만 자를 주조하게

26)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卷14, 「文藝典故·鑄字」 "正祖元年 丁酉, 命平安監司徐命膺, 以甲寅字爲本, 鑄十五萬字於任所, 儲之內閣, 壬寅, 命平安監司徐浩修, 以韓構字爲本, 鑄八萬餘字於該營, 亦儲之內閣. 活字皆有記跋. 癸未字則有寶文閣大提學權近之跋, 庚子字則有集賢殿大提學卞季良之跋, 甲寅字則有集賢殿直提學金鎭之跋, 丁酉字則有奎章提學徐命膺之記."

했다.[27] 이긍익의 평가에 의한다면 그 의미는 세종대 서적문화의 찬란한 업적을 잇는 것으로 서명응은 권근과 변계량, 김빈을 잇는 당대의 학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세종대의 찬란한 서적문화를 부흥시키는 정조의 업적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 업무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 徐浩修는 두 번의 燕行을 통해 청문화의 도입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검토한 바와 같이 규장각의 각종 편찬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장악원 제조로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28]

4. 君師 정조의 문교 정책의 득실

이 글에서는 고찰하고자 한 것은 정조의 문교 정책 가운데 문헌 정리와 관련하여 서명응 부자와 형제, 손자 대까지 이어지는 학술적 교류와 부응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이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조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보만재 서명응의 지도와 자신의 취향으로 인해 학술과 문헌정리를 위한 우문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러한 시도의 핵심적인 기능은 규장각이 담당했고, 규장각은 초계문신과 검서관 제도를 통해 운영되었다.

그런데 학술문화의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인 문헌의 수집과 정리, 편찬에는 특히 서명응을 비롯한 그 일가를 적극 활용했다. 서명응 일가는 군주의 이러한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국가전적에 대한 해제 서목을 작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또 문헌편찬의 중요한 기초작업 가운데 하나인 활자의 주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

정조의 우문정치에 대해 서명응 일가는 최일선에서 부응하며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9] 서씨

27) 서명응 일가는 실제로 목활자를 소장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가학적 전통에 대해서는 조창록, 2003『풍석 서유구에 대한 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28) 조창록, 2006「학산 서호수와『熱河紀遊』」『동방학지』135, 171-180면 참조.

29) 조창록(2003)의 연구는 왜 서씨집안이 정조대에 이르러 중용되었는가를 밝혀두었지만 하필 그 역할이 문헌정리에 집중된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일가들이 저작한 『규장총목』과 『누판고』 그리고 그 작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내각방서록』의 해제에 대한 엄밀한 수준 파악 역시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정조와 서명응 일가의 학술적 조응은 정조의 학술적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되는 정조대 학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상당부분에 있어 정조와 서명응 일가는 당대 학술에 대해 서로 교직하는 과정을 꾸준히 거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와 일정정도 동시대에 이룩되는 『총목제요』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의미심장하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조의 학술진흥은 그가 이룩한 문헌의 수준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 성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아울러 한 군주에게 집중되었던 문교정책의 득실도 함께 비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정조, 규장각, 문교정책, 문헌정리, 해제서목, 서명응 일가

투고일(2017. 9. 1), 심사시작일(2017. 9. 5), 심사완료일(2017. 9. 14)

〈Abstract〉

The Writing of Haejeseomok(解題書目) of Kyujanggak(奎章閣) during King Jeong-jo(正祖)'s Rule and the Family of Seo Myung-eung(徐命膺)

Ham Young-dae *

This paper makes a basic approach to academic exchanges and support that involved the family of Seo Myung-eung in terms of filing of literature, which was part of King Jeong-jo's educational policies. As is confirmed, King Jeong-jo tried to implement the policy of giving priority to the literary over the military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filing of literature. It was due to the instruction of Bomanjae(保晩齋) Seo Myung-eung(徐命膺) and his own taste. The institute that took the central role in this was Kyujanggak(奎章閣). Kyujanggak was practically run by geomseogwan(檢書官, public officials working in Kyujanggak, taking care of the books) system, but those who were actually intended to raise was chogyemoonshin(抄啓文臣, talented civil servants who were selected and reported to King Joeng-jo)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jects of the academic culture, the collection, arrangement, and compilation of literature, Seo Myung-eung and his family were actively involved. Seo Myung-eung and his family actively supported the King's policy, played a key role in writing haejeseomok(解題書目, lists and summaries of books), and also a significant role in casting types.

Seo Myung-eung and his family supported King Jeong-jo's policy of prioritizing the literary in the forefront and played a significant role but this has not been studied enough. What also needs to be examined closely is 'Kyujangchongmok(奎章總目)' and 'Nupango(鏤板考)', and the level of summarizing 'Naegakbangseorok(內閣訪書錄)', which is thought to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production of the two. The scholastic exchange between King Jeong-jo and the family of Seo Myung-eung can

* Senior researcher,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provide a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academia under King Jeong-jo's rule. What is clear is that King Jeong-jo and the family of Seo Myung-eung were steadily influencing each other in the academic world. This can be understood more meaningfully by comparison with 'Chongmokjeyo(總目提要)', which was written in the similar period.

The academic promotion of King Jeong-jo should start from tracing the level of the literature he published and the process. Along with the thorough evaluation of the achievemen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education policies that were focused on one monarchy should also be assessed.

Key Words : King Jeong-jo(正祖), Kyujanggak(奎章閣), education policies, filing literature, haejeseomok(解題書目), the family of Seo Myung-eung(徐命膺)